

KTX 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개마고원 락페 가져 통일없는 평화는 없다 We are on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3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평화의 창' 중 '소원을 말해봐-광주' 프로젝트는 2만 3000개의 퍼즐로 한반도기를 완성하는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아시아문화전당, 남북평화·통일 기원 2만3천개 퍼즐로 한반도기 만들기 프로젝트

'평화의 창' 퍼즐에 소원을 말해봐

내달 2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통일문자도' 전시도

'KTX 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개마고원 락페 가져', '5000년을 함께 살고 겨우 70년 떨어져 산 우리', '전쟁을 극복하는 평화, 갈등을 화해하는 평화, 다름을 인정하는 평화, 일상을 담아내는 평화.' 다양한 퍼즐 조각에 적힌 글귀들이 인상적이다.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글들과 함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이루고 싶은 꿈을 담은 글귀도 보인다. 어떤 퍼즐 조각에는 김원중의 '직녀에게' 가사가 적혔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라이브러리파크 B3(기획관) 바다의 대형 한반도기에 적힌 글귀이다. ACC가 개관 3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남북평화·통일 기원 프로그램 '평화의 창' 행사 중 '소원을 말해봐-광주'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관람객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인 '소원을 말해봐-광주'는 2만 3000개의 퍼즐 조각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원 메시지를 적어 한반도기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다.

18일 전당에서 만난 한 부부는 평양으로 여행을 꿈꾸며 가족의 이름을 쓴 퍼즐을 작성해 한반도기

에 채워 넣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기자도 색색의 펜으로 간단한 소원 몇가지를 적었고 퍼즐을 맞췄다.

프로젝트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하는 퍼즐을 골라 마련된 필기구를 이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적고 난 뒤, 퍼즐을 맞추면 된다. 푸른색 퍼즐은 한반도기가 되고, 흰색 퍼즐은 바탕 배경이 된다. 현재 작품은 북한 지역부터 채워지고 있다. 어떤 이는 제주도와 마라도, 울릉도와 독도에 퍼즐을 놓았다.

이번 작업을 진행하는 손원영 작가는 퍼즐을 이용해 '관계'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해왔다. 2만 3000여개의 퍼즐은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 남북 분단의 기간이 총 2만3429일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했다.

각자가 쓴 소원 퍼즐은 다른 퍼즐들과 연결돼 한반도기를 서서히 형상화하며 화합, 협력, 통일을 상징하게 된다. 지난 6일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학생, 가족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해 퍼즐을 완성해 가고 있으며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퍼즐 작품의 완성은 오는 12월

2일이다.

전시장에는 '통일문자도'도 함께 전시돼 있다. 이산 가족 3세대인 지희정 작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작가의 아버지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나 6·25 때 할머니가 임신한 채로 남쪽으로 피난을 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분단의 피해자다. 작가의 외가 역시 북에서 내려와 당시 북녘 피난민들이 몰려 살던 충무로, 신당동 일대에 거주했다. 남북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지 작가가 '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담아 제작한 작품이다.

지 작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7개의 단어(민중, 평화, 화합, 통일, 사랑, 상상, 번영)를 조선시대 서민들이 즐겨 그렸던 문자도를 차용해 42m의 가벽에 설치했으며 조선대 미술대학 김종경 교수와 제작들이 협업했다.

'소원을 말해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수·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월요일 휴관.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프로는 디테일에 있다'

산수미술관 30일까지 박상호·인춘교·이세현 사진전



박상호 작 '시간여행'

지역에서 다양한 미술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이 사진작가 3명을 초청 '프로는 디테일에 있다'전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초대작가는 다양한 사진기법을 이용해 영원한 현재, 시간, 생명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박상호 작가와 우리 삶의 소외된 곳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인춘교 작가,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 그곳의 역사적 오버제인들과

휴를 던져서 사진을 찍는 이세현 작가다.

이번 전시에 대해 장관장은 "스마트폰, SNS의 대중화로 사진의 촬영에 대해 누구나 흥미를 가지게 됐다. 이번 전시가 사진작가와 사진 애호가의 사진의 차이점, 사진 매체의 예술적 특성 등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교수로 재직중인 박상호 작가는 '영원한 현재'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광주 신세계 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인춘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 왜곡된 사고와 편중된 논리로 인해 만들어진 '섬, 소록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8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세현 작가는 'Boundary' (경계)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는 역사적인 장소에 찾아가 그 장소의 돌과 흙, 먼지 등을 주위 던지며 배경과 오버랩 시켜 촬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의 오픈 시간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문의 062-234-97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의재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발표회

내달 27일까지... 최덕인·김경아·최희원·조하늘 작가 참여



최덕인 작 '설악산 추경'

'기화가거(奇貨可居)'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중 '여불위열전(呂不韋列傳)'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귀한 물건은 당장 쓸데가 없어도 간직할만하다'는 뜻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8년 의재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발표회가 오는 12월 27일까지 열린다.

'기화가거-전통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회화, 조각, 도자 등 다양한 분야 작가들이 전통 수묵화 정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8개월 간 탐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다.

전시에서는 허백련 선생에게 직접 사사한 전통수묵화의 마지막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현 최덕인 작가의 수묵화 작업을 만날 수 있으며 독일에서 도자기를 공부한 도예가 김경아 작가는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또 오랫동안 흙, 나무, 철과 같은 천연 재료로만 작업을 해 온 조각가 최희원 작가가 처음으로 벽을 깨고 새로운 재료로 작업을 시도한 작품을 전시하며 조하늘 작가는 전통수묵화의 먹과 수묵을 활용,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면증, 우울을 주제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전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30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